

장애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조영숙*, 이현수**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장애아동의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애와 후속발달과의 연관성이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장애아동의 학대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조차 보고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아동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보고된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기초로 학대아동의 현황과 후속조치 상황, 학대피해 아동이 보이는 장애의 유형 등을 살펴보았으며, 가정 내에서 장애아동의 학대와 연관된 변인을 아동과 부모의 특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장애아의 부모를 위한 학대예방 프로그램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학대예방 프로그램의 유형을 교육중심프로그램과 치료중심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장애아동의 부모를 위한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장애아동, 학대예방, 부모교육

1. 서론

아동학대는 여러 연령에 걸쳐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한 주양육자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그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복자, 1992; 김유리, 2009).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는 높아지고 있지만,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문제로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거나 아동에 대한 체벌을 훈육 및 징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이중화, 2007).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평생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학대의 가해자가 되도록 한다(김성경·김혜영·최현미, 2009). 아동 학대를 받은 아동은 폭력을 학습하게 되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기 쉬우며, 정서적으로는 위축되고 호기심이

* 제1저자, ** 교신저자.

나 탐구심이 부족하며, 자신에 대해서도 비방어적으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행동적 특성을 보인다(김광일, 1988)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이 누적되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개인적인 능력이 박탈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며, 학대받은 아동이 성장하여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세대 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이종화, 2007).

이렇듯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학대의 결과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0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 대폭 강화되었고, 전국적 규모의 아동보호서비스가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전국 17개 소로 시작되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11년 현재 45개로 증설되었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율도 2001년 0.18%에서 2010년 0.57%로 증가하였으며, 신고사례의 학대진위여부 판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도 2001년 대비 3.3배 증가하였다(윤혜미, 2011).

2000년 이래로 학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은 양적 증가, 서비스 제공 건수 및 인력의 확충 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온 것을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서비스 제공과 현황에 대한 파악은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의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의 당사국이 된 이후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포괄적인 아동의 권리가 장애아동에게는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김유리, 2010),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나 아동정책의 제도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장애아동의 학대 발생률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극히 부족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장애아동의 학대피해 현황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례보고서에 나타난 피해 아동의 현황을 기초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010년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고한 아동학대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대상의 아동의 특성으로는 행동 및 적응 특성이 가장 많고, 다음이 정신 및 정서문제와 장애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특성을 보이는 아동 중에서는 정신지체 아동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등을 포함한 다른 장애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현황보고서에 나타난 아동의 장애현황 만으로는 장애가 학대의 원인인지 혹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를 명확히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장애와 학대간의 연관성이 분명하며 일정한 비율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장애아동을 위한 학대예방을 위한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아동은 생활전반에 걸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장애는 부모에게 심리적, 재정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 걸쳐 심한 부담을 주게 되며,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학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ldson, 1998). 특히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함께 장애아동부모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매우 부족한

한국적 현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와 비인격적인 대우의 반복적인 경험은 부모의 스트레스 유발과 함께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박명숙, 2002).

2010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아직까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장애아동의 학대피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모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독립된 개체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박탈된 것이므로 학대는 반드시 사회적 관심의 영역이 되어야 하며, 특히 장애아의 경우 장애와 학대라는 이중의 고통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의 학대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이라 할 수 있는 장애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체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 및 관련변인

장애아동의 학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이 학대의 위험성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비장애 아동보다 학대경험을 더 자주 강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Ammerman & Baladerian(1993)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에 비해 3.4배 높은 학대를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Jaudes & Diamond(1985)는 뇌성마비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뇌성마비 아동의 23%가 신체학대와 방임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ullivan & Knutson(2000)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장애아동의 경우 1/3정도 학대경험을 한 것에 비해 비장애 아동은 1/10 정도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이 비장애 아동보다 3.4배나 더 많이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장애는 학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부모의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학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학대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장애아동과 관련된 아동학대의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장 최근인 2010년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고한 아동학대 현황조사 결과를 기초로 살펴보고자 하며, 장애아동 학대와 연관이 있는 가정 내 변인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1. 학대피해 아동의 현황

2011년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고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2008년까지는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주목 할 점은 아동학대

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상담의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재신고 사례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표1 참조>. 이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치료뿐만 아니라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아동 보호현황

| 구분 | 총상담신고건수 | 아동학대신고건수1) | 학대아동보호건수2) | 재신고건수(%3) |
|------|---------|------------|------------|-------------|
| 2005 | 8,000 | 5,761 | 4,633 | 573(7.2) |
| 2006 | 8,903 | 6,452 | 5,202 | 684(7.7) |
| 2007 | 9,478 | 7,083 | 5,581 | 957(10.1) |
| 2008 | 9,570 | 7,219 | 5,578 | 930(9.7) |
| 2009 | 9,309 | 7,354 | 5,685 | 1,134(12.2) |
| 2010 | 9,199 | 7,406 | 5,657 | 1,262(13.7) |

※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신고건수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 받은 건수

※ 2) 아동학대 신고 받은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

※ 3) 상담신고건수 중 두 번 이상 신고 된 사례의 접수건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에서 보고한 전국 2010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의 성별 차이<표 2> 참조는 남녀 각각 49.7%, 50.3%로 거의 동일하였으며, 연령별로는 만 10~15세가 48.1%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 아동은 19.1%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령 전 아동은 전체 피해 아동의 25.6%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에 비해 학령 전 아동의 비율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외부 활동이 적기 때문에 학대피해가 있더라도 외부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표 2>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

| 특성 | 빈도 | 비율 | |
|-------|--------|-------|------|
| 아동 성별 | 남 | 2,810 | 49.7 |
| | 여 | 2,847 | 50.3 |
| 아동 연령 | 1세 미만 | 167 | 3.0 |
| | 1~3세 | 567 | 10.0 |
| | 4~6세 | 715 | 12.6 |
| | 7~9세 | 1,082 | 19.1 |
| | 10~12세 | 1,449 | 25.6 |
| | 13~15세 | 1,272 | 22.5 |
| | 16~17세 | 405 | 7.2 |
| 총계 | 5,657 | 100 | |

2010년 아동학대 피해 현황보고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크게 부모와 부모가 아닌 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4,70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3.2%를 차지하였고, 친부가 49.4%, 친모가 30.2%로 나타나 주로 친부모에 의해 아동학대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표 3> 참조).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전체의 78.0%였으며, 아동 학대 발생 장소 역시 전체의 87.9%에 해당하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 조치 결과(<표 4> 참조)는 원가정 보호가 72.6%로 격리보호인 25.9%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친부모가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정 보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서 미루어 볼 때 장애아동의 경우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비장애 아동에 비해 부족하고 대처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장애아동의 학대 문제는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 3> 학대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단위: 건, %)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총계 | 4,633 | 5,202 | 5,581 | 5,578 | 5,685 | 5,657 |
| 부모 | 3,862(83.4) | 4,326(83.2) | 4,524(81.1) | 4,719(84.6) | 4,734(83.3) | 4,709(83.2) |
| 조부모 | 141(3.0) | 186(3.6) | 205(3.7) | 194(3.5) | 230(4.0) | 182(3.2) |
| 친인척 | 114(2.5) | 142(2.7) | 123(2.2) | 145(2.5) | 16(0.3) | 82(1.4) |
| 형제자매 | 16(0.3) | 15(0.3) | 26(0.5) | 22(0.4) | 16(0.3) | 11(0.2) |
| 부모의 동거인 | 79(1.7) | 67(1.3) | 88(1.6) | 78(1.4) | 88(1.5) | 82(1.4) |
| 기타 | 421(9.1) | 466(9.0) | 615(11.0) | 420(7.5) | 476(8.4) | 529(9.4) |

※기타: 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이웃, 낯선 사람, 파악 안 되는 경우 포함.

<표 4>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 조치결과

(단위: 건, %)

| 원가정 보호 | 격리보호 | 사망 | 타기관 의뢰 | 계 |
|-------------|-------------|--------|---------|------------|
| 4,108(72.6) | 1,500(25.9) | 1(0.1) | 48(0.8) | 5,657(100) |

2. 가정 내 장애아동 학대 관련변인

1) 장애아동의 특성

아동학대와 방임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아동의 특성이다. 윤혜미(2011)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례보고서를 정리하여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대상의 아동의 특성으로는 행동 및 적응 특성이 가장 많고, 다음이 정신 및 정서문제와 장애이다. 장애를 보인 아동 중 정신지체가 전체 장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도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언어장애, 지체부자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고 된 학대피해 아동이 보이는 장애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장애아동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대받는 아동들은 장애유무를 떠나서 정서적·행동적인 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데 김광일(1988)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표 5> 참조). 즉, 학대아동들은 첫째, 표현과 자아개념적 특성에서 표현력이 적고 자존감이 낮거나 분노적대적인 행동을 보인다. 둘째, 좌절이나 불운에 대한 반응, 언와 학습적 특성으로 기가 죽거나 짜증을 자주 내며, 언어나 학습면이 늦고 점진적인 하락을 보인다. 셋째, 또래관계에서 규칙을 무시하는 행동을 빈번하게 보이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또래들로부터 소외되기 쉽다는 것이다. 넷째,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요구를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는 행동을 보이며,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보인다. 다섯째, 다른 성인과의 관계에서 무분별하게 애착행동을 구하기도 하며, 남을 믿지 못하는 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비장애 아동이 보이는 정서적, 행동적인 특성을 장애 아동 역시 동일하게 나타낼 것이라는 것은 장애아동의 연구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과거 학교에서 교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청각중복아동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학대를 받은 아동들끼리 학대 행위를 모방하고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는 결과는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아동의 학대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미디어다음, 2011. 10. 4일자).

비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아동의 일반적인 특징과 마찬가지로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아동의 학대는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김유리, 2010). 이러한 특성에는 의사소통 능력, 자기보호 능력의 부족, 학대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이 포함되면 이러한 제한된 능력으로 인하여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한다(Sullivan & Knutson, 1993). 장애아동은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존성이 학대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성교육을 통해 성학대에 대한 설명과 그 상황을 피하는 기술(예, ‘싫어요’ 말하기, 도망치기 등)이 교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은 모든 유형의 학대를 경험할 수 있는 위험에 놓여있고 중복학대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학대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연습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에게 다양한 예방 기술과 지식을 교수하여 학대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1980년대 중반이후로 선진 외국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오고 있는 문제이다(김유리, 2009).

<표 5>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받는 아동

| 학대종류 연령 행동범주 | 신체적으로 학대받는 아동 | |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아동 | |
|--------------------------------|---|--|---|---|
| | 5세 이하 | 6~12세 | 5세 이하 | 6~12세 |
| 표현과 자아개념 | ·감동하지 않는다 ·놀지 못한다 ·다른 아이가 때려도 반응이 없다 | ·의견이 거의 없다 ·충동적이거나 억압적 ·공격적이거나 위축 ·정서발달의 미성숙 | ·몸을 흔들거나 손가락을 빠는 자기위안행동 ·놀지 않는다 ·거의 웃지 않는다 | ·몸을 흔들거나 손가 락을 빠는 자기위안 행동 ·놀지 않는다 ·거의 웃지 않는다 |
| 좌절이나 불운에 대한 반응 언어와 학습 | ·기가 죽거나 짜증낸 다 ·언어발달이 늦다 ·운동발달이 늦다 ·주의집중시간이 짧다 | ·참을성이 없다 ·학습 불능을 보인다 ·말을 더듬는다. ·학습능력이 쇠퇴한다 | ·어순을 혼동하거나 언어 발달이 늦다 | ·어순을 혼동한다 ·학업이 뛰어나거나, 성적, IQ의 점진적인 하락을 보인다 |
| 또래관계 |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다 ·또래와의 관계를 기 피하거나 공격적이다 ·순서를 지키거나 기 다리지 못한다 | ·또래에게 무관심하다 ·물건이나 시종을 받 으려고 친구를 조종하 고, 통제하거나 빼앗 는다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린다 | ·사회적 기술이 매우 부 적절하다 | ·친구를 사귀는데 매 우 어려움이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부족하다 ·자기 파괴적이거나 때로는 수동적이다 |
| 부모와의 관계 | ·편안함을 기대하지 않는다 ·위험에 민첩하게 대 응 ·부모의 요구를 두려 워한다 ·부모의 반응을 끊임 없이 살핀다 | ·부모의 의심 많고 남 을 믿지 못하는 행동 이 그대로 나타난다 ·부모의 요구를 두려 워한다 ·편안함을 기대하지 않는다 | ·무감각하게 부모와 떨어 져 있거나 부모의 환심 을 사려고 한다 ·산만하고 무반응 적이고 까다롭다 ·부모를 살피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 | ·부적절하게 어른스 러운 행동을 한다 ·부모의 요구를 만족 시키려고 애쓴다 |
| 다른 성인과의 관계 | ·보는 사람에게 마다 사랑을 구한다 ·신체적인 접촉을 피 한다 ·칭찬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항상 관심이나 물건 을 더 원한다 | ·염려하고, 의심이 많 고, 남을 믿지 못한다 ·먹을 것이나 사랑을 얻기 위해 속이고 조 종한다 ·규율을 지키지 않는 다 | ·관심을 끝만한 방법으로 다른 성인과 무분별하게 관계를 맺는다 ·관심을 끌려고 하고, 항 상 뭔가 더 필요하고 부 족해 보인다 | ·인정받으려 하고 관 심을 끌려고 한다 |

※ 자료: 김광일(1988, 352-355)에서 재구성.

2) 장애아동 부모의 특성

학대와 장애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김유리, 2010; 박명숙, 2002; Jaudes & Diamond, 1985; Sullivan & Knutson, 2000)에 따르면, 장애아동은 비장애 아동에 비해 더 높은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 장애아동의 학대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부모와 관련된 요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가정에서 자녀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학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좌절감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양육역할과 양육태도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되는 어려움이지만, 특히 장애아동을 일차적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어머니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체계 내에서 장애아동 양육의 책임이 대부분 어머니들에게 부과되고 있어서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 비해 더 많은 양육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유리, 2010; 김인숙, 2002; 박명숙, 2002; Jaudes & Diamond, 1985; Sullivan & Knutson, 2000).

양육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아동의 학대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의 정도에 학대피해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은자(2007)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경우 상대적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와 신체적, 언어적 학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Verdugo 등(1995)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53%가 경도 혹은 중등도 장애를 가진 반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는 19%만이 경도 혹은 중등도 장애를 가졌다고 보고하면서 기능적으로 덜 손상된 장애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김유리, 2009 재인용).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지역과 대상에 따라 학대피해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정에서 장애아동이 학대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동을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좌절된 부모의 정서적 경험은 무관심, 배척, 거부, 혹은 억애적인 태도들로 표현되고 이러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한 아동학대가 비장애 아동의 부모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장애아동의 부모에 의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장애아동의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장애아동의 학대에 대한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아동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장애아동이 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대에 대한 중재에 앞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아동의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본 장에서는 학대아동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우선을 둔 교육중심 프로그램과 심리·정서적인 문제의 치유를 중심으로 한 치료중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아동의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은 참여자에게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쌓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모교육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삶의 변화에 부모가 잘 준비한다면 곳곳에 만연하고 증가하는 스트레스 요소를 잘 다루어 갈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이재연·윤선화, 2004).

교육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보건학 모델에서 사용하는 일차 예방에 좀 더 근접한 것으로 지역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일정 기간 동안 부모역할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2007)에서 아동권리 교육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훈육’ 책자를 번역·출간하였다. 긍정적 훈육이란 무조건 허용하는 양육법이나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의 통제능력 및 삶의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장기적 솔루션에 관한 것이며 비폭력, 공감, 자기존중, 인권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소희(1995)는 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총 9개 영역의 23개 주제와 77개의 하위주제로 구성된 「아빠·엄마, 우리를 학대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읽기 자료책을 개발하였다. 9개 영역에는 부모의 역할, 부모의 자녀 교육관,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의 분위기, 아동의 발달 특성, 학대이론, 학대부모, 학대유아, 양육지원체계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읽기 자료책은 프로그램의 활용이 용이하며, 전국적인 규모의 교육활동 전개가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상이 불특정적 다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학대예방교육을 부모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통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굿네이버스(구, 한국이웃사랑회)에서는 아동·부모·교사에게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케하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아동들의 참여 활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헤아려 타인의 권리 또한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아동의 힘 키우기(CES: Child Empowering Service)」 서비스를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회기에 45~60분이 소요되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판단에 의해 개발된 것(이호균·장화정·유선영, 2001)으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사한 방식으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PAPCM(Participatory Activit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 보고된 학대아동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심효현(2005)은 가정 내의 아동학대에 초점을 두고 아동학대의 실태와 현황을 바탕으로 유아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모형을 제시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폭력예방교육, 아동발달의 이해, 아동학대의 이해, 적절한 훈육방법,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와 대처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제시한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 복지프로그램으로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성격을 갖는 것이다. 또한 임성혜·이지숙(1997)은 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하기 위하여 유아발달에 대한 교육,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학대문제 인식교육, 부모자조 집단 조직 등의 네 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유아학대 예방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유아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과 부모의 분노를 자아내는 유아의 행동을 줄이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모교육으로 신체적 학대 없이 훈육하는 학습, 스트레스 대처방법, 충동적 행동과 분노의 효과적 취급, 부모자식간의 애착증진 교육, 부모의 대처능력 부족과 정서 결함의 경우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 아동발달에 대한 부모의 기초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동 성장발달에 대한 교육, 부모가 고립감을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경우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끼리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부모자조집단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2. 치료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

일차예방이 이미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과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자녀양육의 기술, 학대에 대한 이해와 대처기술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차예방은 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에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주로 기존의 다른 기관에서 의뢰되어 온 부모나 혹은 스스로 자신이 자녀를 학대하는 위험한 부모로 여기는 부모들이다. 교육중심프로그램과 달리 치료중심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양육에 지식이나 학대예방을 위한 정보적 전달이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부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다루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2001)에서 5명의 학대 부모를 대상으로 6회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대행동에 대한 자기인식 확장, 학대행위자의 아동기 탐색, 스트레스 관리, 분노조절, 부모역할 등을 다루었다(이재연·윤선화, 2004). 또한 안동현 등(2003)은 아동학대에 대해 발견과 보호보다는 치료나 예방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예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동학대 부모를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대사실에 대한 통찰 및 책임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인식을 변화시켜 가족 통합 및 가족보존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아동 발달과 부모역할 이해, 학대행위자로서의 ‘나’에 대

한 이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학대행위자로서의 책임감 인식, 대안적 기술 습득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국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치료의 한 예로 ‘익명의 부모모임’(Parent Anonymous: P. A)을 들 수 있다. 이 모임은 매우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다. 부모로서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가능하면 빨리 학대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체 학대와 유기,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유기와 같은 학대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타 부모들의 학대 방입에도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천희영, 1989).

위에서 기술한 집단 프로그램은 같은 처지의 부모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경험과 느낌, 문제를 토론하고 고립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가진 문제의 수준이 서로 상이하고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 치료나 부모-아동 상호작용 등의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서수정(2001)은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아 애착장애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총 12회기에 걸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는 민감성 증진, 모-아 상호작용에 대한 비디오 피드백, 교육, 어머니의 애착 표상에 대한 통찰과 아동에 대한 애착 표상 변화,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의 해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 장애아동 학대 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자녀의 장애는 분명 양육자에게 많은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며 가족의 생활주기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며, 장애와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는 아동에 학대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Ammerman(1997)이 문헌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학대위험이 비장애아동보다 월등히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모에게 가중되는 스트레스와 부담이 증가할수록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학대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의 시행은 아직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아동 부모에게 제공되는 장애에 대한 치료 및 재활, 가족에 대한 교육, 각종 지원체계 강화 등의 사회적 지지는 장애아동 부모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은 대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열악한 주거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러한 물리적인 조건 역시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대아동 예방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장애아의 학대예방을 프로그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교육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접근 방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Bavoik & Bavoik(1989)는 일정하게 정해진 프로그램이 부모들에게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데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부모들에게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가정에 맞

게 수정하거나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대상에 따른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지역사회 부모들의 욕구를 고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장애의 유형과 적응의 정도가 매우 다양한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교육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좀 더 유념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이재연·윤선화, 2004에서 재인용).

첫째, 부모가 자녀의 장애에 알고 있는 정보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동일한 장애라 할지라도 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 인지, 행동, 정서적인 면에서 표현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장애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장애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학대를 가하는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학대를 가하는 부모는 자신의 학대행위가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올바른 훈육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낮은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일 경우 자녀에게 가하는 학대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박명숙, 2002)는 환경적인 열악함과 더불어 부모-자녀 관계의 질마저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전략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실시 전에 가해 부모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분노 및 스트레스 조절훈련, 자기 통제훈련, 아동보호기술 훈련 등 다양한 치료프로그램들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류 사회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주요한 문제이므로 장애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더불어 통합적으로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IV. 결론

아동학대는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학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소외와 편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대경험은 장애아동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일로만 치부하던 아동 학대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전환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공적 체계 속에서 실시해온 현행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해 많은 피해아동과 가족이 보호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예방보다는 신고사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아직까지 장애아동의 학대현황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장애아동의 인권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아동은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아동의 학대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실천 가능한 장애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아동학대 프로그램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장애아동 및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아동의 학대 예방 부모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참여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가족은 물론이고 이미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가족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그 효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의 정도와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의 정도, 부모의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차별화된 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아동 가족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복자. 1992. 아동구타의 발생률 조사.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3(1): 56-72.
- 김광일. 1988. 가정폭력. 서울: 탐구당.
- 김성경·김혜영·최현미. 2009. 아동복지론. 서울: 양서원.
- 김유리. 2009. 장애아동과 학대. 중북·지체부자유연구. 52(2): 189-204.
- 김유리. 2010.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과 학교의 예방적 역할. 특수교육. 9(3): 71-89.
- 김인숙. 2002. 장애인 가정의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현장특수교육. 9(5): 48-53.
- 박명숙. 2002.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서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311-327.
- 보건복지부. 2011. 2010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수정. 2001. 정서적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안정애착 형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심효현. 200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안동현·박현선·김완진·한지숙. 2003.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 이소희. 1995. 유아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 71-84.
- 이재연·윤선화. 200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탐색. 아동권리연구. 8(2): 237-252.

- 이종화. 2007.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임상사회사업연구*. 4(1): 213-235.
- 이호균·장화정·유선영. 2001.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아동·부모·교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아동힘키우기서비스(CES:Child Empowering Service)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5(1): 23-33.
- 임성혜·이지숙. 1997. 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 *진주전문대학논문집*. 20: 333-347.
- 정은자. 2007.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학대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천희영. 1989.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진주실업전문대학논문집*. 11: 1-24.
- Ammerman, Robert. 1997. Physical Abuse and Childhood Disability: Risk and Treatment Factor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and Trauma*. 1: 207-224.
- Ammerman, Robert. T., & Baladerian, Nora. J. 1993. *Maltreat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I: National Committee to Prevent Child Abuse.
- Goldson, Edward. 1998.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and Neglect*. 22: 663-667.
- Jaudes, Paula. K., & Diamond, Linda. J. 1985. The Handicapped Children and Child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22: 271-288.
- Sullivan, Patrica. M., & Knutson, John. F. 2000. Maltreatment and Disabilities: A Population-Based Epidemiological Study. *Child Abuse and Neglect*. 24: 1257-1273.

趙英淑: 성균관대학교에서 아동학 박사학위(논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간의 관련성 탐색, 2007)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북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전임강사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장애아동의 재활상담, 자기조절, 양육행동 등이다(yscho@hanbuk.ac.kr)

李炫洙: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실행 모형 개발 연구(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관심분야는 장애인 인권, 장애인 교육 등이다. 주요 논문 및 연구로는 “발화속도와 독화의 상관연구”,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청각장애학교유치부 교육과정 개발방안”,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 현황과 개선방안” 외 다수 가 있으며, 주요저서는 교육실습의 탐구(양서원), 예비특수교사를 위한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양서원), 최신특수학교 교육과정(인포럼), 장애 아동부모교육(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외 다수 가 있다 (mil37@youngdong.ac.kr).

투 고 일: 2011년 09월 19일
수 정 일: 2011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2011년 11월 09일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on of Disabled Children Abuse

Young Suk Cho, Hyun Soo Le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necessity of the development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with a disabilities. Although several studies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led children's abuse and developmental problems, there is no official statistic data related with disabled children abuse and little systematic approaches to protect their rights in Korea. Based on 2010 Abused Children's Status Reports, the status of abused children, follow-up results, and the type of disorders seen by abused children were reviewed. As there are relatively few preventive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current abuse prevention programs were divided into education-oriented programs and treatment-oriented programs to serve as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new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how to design appropriate abuse prevention programs for disabl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Key words: disability, prevention, parenting education